



눈 내리는 산굼부리 8일 제주시 조천읍 산굼부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눈을 맞으며 걸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 대입 정시 '제주대 약대' 57대 1 최고 의약학계열 지원 증가... 제주대 의대는 4.46대 1

의대 증원 여파로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가운데, 의약학계열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제주대학교 약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등 의약학계열 지원 건수는 모두 2만2546건으로 전년(1만9037건)보다 3509건(18.4%) 늘었다. 계열별 지원 건수를 보면 전년 대비 의대는 2421건, 약대 588건, 한의대 266건, 치대 234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전체 증가분 가운데 지방권이 78.2%(2743건)를 차지

했다. 평균 경쟁률은 한의대가 10.5대 1로 가장 높았고 약대 9.0대 1, 의대 6.6대 1, 치대 6.1대 1 순이었다. 학교별 경쟁률을 보면 제주대학교 약대가 57대 1로, 약대 뿐만 아니라 의약학계열 가운데 가장 경쟁률이 높았다. 제주대 약대는 9명 모집에 51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는 순천향대 26.19대 1, 한의대는 동국대(WISE) 25.13대 1, 치대는 강릉원주대 15.33대 1로 경쟁률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제주대 의대는 37명 모집에 165명이 지원해 4.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단속 강화에도 1100도로 불법 주·정차 여전

### 지난달 21일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 단속 강화 설경 관광객 몰리며 주차장 가득... 주변 도로 몸살

매년 겨울마다 한라산 설경을 감상하기 위한 탐방객들이 몰리면서 교통혼잡 문제가 반복됐던 1100도로에 대해 행정당국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위법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나타났다. 8일 한라산 1100도로. 평일 오전 시간대에도 설경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일대에 몰려들었다. 1100고지 휴게소 주차장은 이미 만차가 됐고, 운전자들은 주차할 공간을 찾다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길가에 차량을 세웠다.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시 즉시 강력 단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었지만, 경고문이 무색할 정도로 편도 1차로(제주시→서귀포시)는 금세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빼곡했다.

운전자들은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에서 온 40대 A씨는 "눈 구경을 위해 몇 번 1100고지를 찾았는데 그때마다 늘 주차문제가 있었다"면서 "주차공간이 어디에도 없으니 갓길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곳 도로를 지나가던 운전자들은 "사람들이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나올 뿐만 아니라 차도 한가운데로 통행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위험을 토로했다. 행정당국은 겨울철이면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8일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인근 도로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가득차 있다. 김채현기자

실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귀포시는 이 곳에서 불법 주정차 376건(고정식 176건·이동식 200건)을 단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 62건(고정식)의 6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제주시는 69건을 단속했다. 제주시는 현재 이동식 CCTV 단속만 벌이고 있다. 이날 이곳에서 교통업무를 수행

하던 자치경찰 관계자는 "겨울철만 되면 관광객들이 1100고지에 많이 찾아오면서 불법 주·정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6시까지 교대로 현장근무를 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서귀포시, 설 명절 앞두고 관광지·올레길 대청결 운동

서귀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광지·올레길 대청결 운동을 펼친다. 서귀포시는 귀성·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설맞이 대청결 운동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17개 읍면동별로 구역을 나눠 지역주민, 자생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해 도로변, 마을안길, 올레길, 관광지 등에서 자율 추진된다. 또 주요 관광지·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401개소에 대해서도 이달 13일부터 2월 5일까지 특별점검한다. 주요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와 비누·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상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 “4·3교육 체계화 한다며 담당인력은 1명 뿐”

### 어제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위한 토론회 10년간 교육 평가 기회 필요·역사왜곡 대응 모색도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올해 세워진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1명뿐이어서 충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마련된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안)'은 '평화·인권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을 비전으로 한 4대 추진 전략, 15대 추진 과제, 29개 세부

주요 과제가 담겼다. 올해부터 2040년까지 4·3평화·인권교육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며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전국화·세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은 "4·3평화·인권교육은 2013년 4월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볼 수 있다"며 "관련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많은 고민과 토론 속에서 중장기 계획안이 마련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0년의 4·3평화·인권교육을 심도 있게 평가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희 제주4·3평화재단 공원관

리팀장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주체는 전담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담팀 구성을 장기과제로 구분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현재 장학사 1명이 4·3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4·3교육의 체계·내실화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충원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 비상하는 신성, 영원한 동행!

### 신성학원총동문회

제38회 정기총회 및  
동문회장 이·취임식

일시. 2025년 1월 11일(토) 10:00  
장소. 신성여자고등학교 자비관

### 취 축 임

제28대 신성학원 총동문회장



신성학원총동문회 제28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28대 회장단

회장 강경숙(22회)	수석 부회장 고금희(23회)
교육 부회장 김명실(24회)	홍보 부회장 이진경(25회)
섭외 부회장 양가애(26회)	문화 부회장 오경희(27회)
축제기획부회장 윤숙현(28회)	사무국 장 전효정(30회)

### 신성

## 제27대 신성학원총동문회 회장 김현숙 외 동문 일동